

첫 자녀 출산 후 노동시장 신규진입의 결정요인

Determinant of Married Women's New Entry in Labor Market after the First Child Birth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김지경

Employment Research Center of Korea Labor Institute
Senior Resercher : Ji-Kyung Kim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의 논의 및 해석 |
| II. 출산 후 기혼여성 노동 공급의 결정요인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has examined factors of young married women's new entry in labor market after the birth of their first child. For the dynamic analysis, the Cox Regression Hazard Model is applied.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First, about 33% of married women who did not have a job at the pre-birth enter in labor market at the post-birth. Second, compared to those out of the labor force, women who succeeded in finding their first jobs after the birth of their first child are more likely to be younger, have baby-sitters, have working experiences in the past, and have lower level of household income. Third, age, having baby-sitter and the experience of job transition are vital factors in entering the labor market after the first child birth.

주제어(Key Words): 기혼여성(married women), 노동시장(labor market), 신규진입(new entry) 콕스비례 재해울모델(Cox regression hazard model)

I. 서론
가계경제학에서 접근하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연구는 Mincer와 Becker를 비롯한 신 고전경제학파의 노동공급이론을 기초로 하고, 한 시점에서의 노동공급의 의사결정과 노동공급량에

Corresponding Author: Ji-Kyung Kim, Korea Labor Institute 10F Korea Federation of Small Business Bldg, 16-2, Youido-dong, Yongsungpo-gu, Seoul, 150-740 Korea Youido P.O.BOX518 Tel: 82-2-3775-0674 E-mail: jkkim@kli.re.kr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태적 모델(static model)로 분석한 연구(김수곤 심경옥, 1984; 신영수, 1991; 김영옥 노미혜, 1993; 양승주, 1994; 김태홍, 1995; 문숙재 외, 1996; 김혜연 김순미, 1997; 김지경 조유현, 2001)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정태적 분석모델은 일정한 한 시점에서 관찰된 사실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진입과 탈퇴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가변변수(time-varying covariates)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며 지속기간 자료의 단절문제(censoring problem of duration data) 또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생애주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분석하는데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

예컨대 자녀출산과 양육시기의 연령으로 분류되는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80년 40.8%에서 1990년 43.8%로 증가하였고, 다시 2001년 48.8%까지 증가하였는데(통계청, 2002). 이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정태적 분석모델을 통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신규진입자의 대량유입에 의한 것인지,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이 중도 이탈 없이 연속적인 취업상태 유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없다. 특히 자녀 출산과 양육시기에 여성노동력이 급격히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간 후, 그 이후 연령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이 신규진입자인지 연속적인 취업자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취업구조를 근거로 여성 생애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최고조인 20대 초반과 40대의 두 집단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집단일 가능성이 크고(장지연 김지경, 2001), 우리나라 여성들이 연속적인 취업을 유지하기보다는 생애주기에 따른 불연속적인 취업을 하는 유형이 지배적이다(김영옥, 1998)라는 선행연구 결과들에 비추어볼 때, 여성의 출산과 양육시기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신규진입자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는 있다.

만약 그러하다면, 출산 이후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어떠한 요인들이 출산 후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데 영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기혼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집중되어 왔으나, 출산 후 유보임금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여성이 적지 않다면 출산 후 기혼여성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보다 다양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출산시점을 중심으로 한 취업상태의 변화를 개인 생애를 추적하여 살펴보고, 자녀 출산으로 높아진 유보임금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노동시장이행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분석자료로 사용하고,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설명하는데 있어 제한적인 정태적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동태적 모델(dynamic model)의 하나인 콕스비해해탈모델(Cox Regression hazard model)을 분석 틀로 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는 잠재적 기혼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확립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출산 후 기혼여성 노동공급의 결정요인

출산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를 동태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출산 후 기혼여성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을 인구학적 특성과, 인적자본요인, 가계 특성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특성별로 분류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출산 후 노동공급의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인구학적 특성

출산 시기를 중심으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동태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살펴

보면 대체로 젊은 여성일수록 출산 후 노동시장에 재 진입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Desi & Waite(1991)의 연구에 의하면 젊은층의 여성이 나이 많은 여성에 비해 출산 후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취업에 대해서 더 강한 애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hang(1994)의 연구에서도 젊은 여성이 출산을 전 후 하여 비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이행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재열(1996)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마지막 자녀를 출산 한 이후에 노동시장으로의 이행률이 결혼 전에 비해 2.8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인적자본요인

출산 후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 요인은 학력과, 경력, 그리고 학력과 경력이 반영된 노동시장의 임금을 들 수 있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학력의 효과를 살펴보면, 학력이 출산 후 여성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만큼 각 연구의 결과들은 일관성이 없다. 예컨대 Chang(1997)의 연구에서는 고학력 여성들이 자녀양육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여 출산 후 요구임금이 매우 높아 지므로, 이들의 학력은 출산 후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Greetein(1989)도 출산 후 노동시장 참여에 대해서 학력은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Leibowitz와 그의 동료들(1991)과 Klerman(1993)은 고학력보다는 저학력이 출산 후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이라고 하였으며, Flenlee(1984)도 고학력의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의 진입이 쉽기 때문에 생애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고 하였다.

둘째, 경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취업경력이 많은 여성일수록 출산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김영옥(1998)의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잦은 이동을 경험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에 더 쉽게 진입하는 반면, 생애 총 비취업기간이 증가할수록 취업으로 이행이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이는 곧 노동시장의 경력이 많을수록 취업으로 이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Borrow(1999)의 연구에서는 첫 자녀 출산 이전에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3/4이 출산 후 1년 이내에 노동시장에 재 진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학력과 경력이 반영된 임금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살펴보면, 최근 연구에서 밝혀지는 공통된 결과는 출산 후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 여성 자신의 임금이 자신의 소득을 제외한 가구의 총소득보다 더 주요한 영향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Mason & Kuhlthau(1992)의 연구에서는 여성 자신의 임금수준이 남편을 비롯한 기타 가족의 소득수준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높은 임금을 받는 여성이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에 비해 자녀 양육문제가 그들의 취업에 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Wenk & Garret(1992)의 연구에서도 여성들의 출산 후 지속적인 취업에 부(-)적 효과를 야기하는 남편 수입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여성 자신의 수입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정(+)의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Dex와 그의 동료들(1998)은 자녀출산을 연기하는 높은 임금의 여성은 자녀의 연령이 어린 동안에도 시장노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3. 가계특성요인

출산 후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특성 요인으로는 자녀보육자의 유무와 남편소득을 비롯한 가계의 소득 수준이다.

먼저 자녀보육자 유무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자녀보육자가 있는 경우 특히 자녀보육자로서 친인척이 있는 경우가 기혼여성들의 보육비용을 낮추고 출산 후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녀보육자가 있는 여성이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Lerer & Nerlove, 1984; Klerman &

Leibowitz, 1990), 특히 친인척에 의한 보육은 부모에 의한 보육과 같은 높은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친인척의 존재는 금전적인 자원 이외에 여성이 보육문제에 대한 노동공급의 제한을 덜 느끼게 하므로 출산 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주요한 영향요인이 된다. 보육을 맡아 줄 친인척이 있는 여성들은 그렇지 못한 여성들에 비해 낮은 보육비용을 지출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유보임금을 갖게 되어 노동공급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Mason & Kuhlthau, 1992).

둘째, 가계의 소득수준은 여가를 살 수 있는 여력을 의미하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시장노동은 가사노동이나 여가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구의 높은 소득 수준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와 근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Klerman & Leibowitz(1990)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의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이 출산 이후 바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남편 등 기타가족원의 수입과 자산이 많은 여성일수록 취업확률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Dex 와 그의 동료들(1998)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소득은 출산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에 부(-)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enk & Garrett(1992)의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출산 직후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남편소득의 효과가 여전히 존재하나, 여성 자신의 수입능력 효과는 더 커지고 있는 반면에 남편소득의 효과는 더 적어지는 것으로 밝혀져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단지 가계의 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부가적인 노동공급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와 분석대상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이다. 이 자료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을 대상으로 1998년 이래 매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

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을 추적 조사하여 만들어지는 종단면 자료(longitudinal data)이다. 매년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표본가구 구성원들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정보를 수집하는 가운데 조사 년수가 늘어가면서 표본가구원 개인들의 생애과정(Life Course)에 걸친 단계별 변화와 이동의 이력, 특히 학교 교육력(Schooling History), 취업력(Work History) 혹은 노동시장 이동(Labor Market Transitions)과정이 파악 될 수 있다(한국노동연구원, 1998).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되는 부분은 4년(1998년~2001년)에 걸친 반복조사를 통해 축적된 취업력 혹은 노동시장 이동과정을 포착한 부분이다. 취업력에는 15세 이상 표본 원가구원이 생애 경험한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회고자료(retrospective data)도 포함되어 있다.

2) 분석대상

분석의 대상은 첫 자녀 출산시기가 1997년에서 2001년 사이인 기혼여성 중, 출산 전 비취업상태에 있었던 136명이다. 분석 대상을 1997년 이후에 첫 자녀를 출산한 기혼여성으로 제한한 이유는 1998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한국노동패널자료에는 노동시장 경력과 관련된 일부분의 회고자료를 제외하고는 여성의 노동공급과 노동시장이동을 분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계특성에 관한 1997년 이전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특성은 136명의 분석대상자들의 출산 시점에서의 특성을 나타낸다. 평균 연령이 27.1세인 젊은 기혼여성들이며 평균 교육년수는 13년 정도이다. 이들 가계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50.5만원 정도이고 92.6%가 자녀보육자가 없으며 52.2%의 남편이 임금근로이고, 이들의 출산 전 직업변경횟수는 평균 0.8회이다.

2. 분석모델

출산 이후 기혼여성의 신규 노동시장 진입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콕

〈표 1〉 분석대상자의 특성 (N=136, 비율=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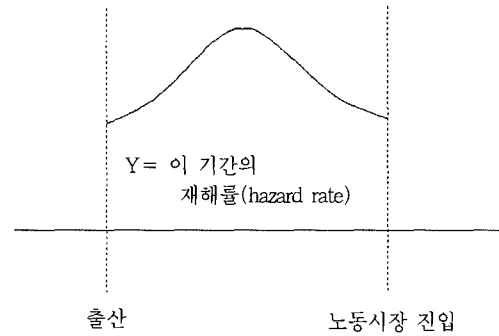
구분	범주	사례수(비율)	
출산시기(년)	1997	66(48.5)	
	1998	34(25.0)	
	1999	18(13.2)	
	2000	10(7.4)	
	2001	8(5.9)	
연령(세)	25세 미만	33(24.3)	
	25-30세 미만	74(54.4)	
	30-35세 미만	24(17.6)	
	35세 이상	5(3.7)	
	평균	27.1	
학력수준(년)	고졸미만	3(2.2)	
	고졸	88(64.7)	
	전문대졸	25(18.4)	
	대졸이상	20(14.7)	
	평균	13.0	
자녀보육 대행자 유무	있음	10(7.4)	
	없음	126(92.6)	
가구총소득(만원)	월평균 가구 총소득	150.5	
남편의 취업유형	임금근로자	71(52.2)	
	비임금근로자	65(47.8)	
직업 전환경험 유무	없음	73(53.7)	
	있음	1회	37(27.2)
		2회	19(13.9)
		3회 이상	7(5.2)
		평균	0.8

스비례재해률모형(Cox Regression Hazard Model)이다. 이 모형에서는 출산이 관찰되는 기간의 시작 시점이 되고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여부가 비취업상태에서 벗어나는 사건(event)이 되며, 출산시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하기까지의 비취업기간이 분석단위가 된다.

분석단위인 출산시점부터 노동시장 진입까지의 기간(spell or duration)은 다음과 같은 재해률 함수(hazard function), $hi(t)$ 를 따른다.

$$hi(t) = h_0(t) \exp(Z_i\beta)$$

여기서 $h_0(t)$ 는 임의의 특정화되지 않은 기준재해



〈그림 1〉 콕스비례재해률 모형의 분석단위

률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이다. Z_i 는 독립변수의 벡터이고, β 는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의 모수(regression parameters)이다.

일반적으로 분석결과 나온 계수값은 재해률(Hazard rate)을 의미하며, logit 분석과 같이 계수의 부호만을 해석하여 계수가 음(-)이면 이행률이 낮은 것이고, 양(+)이면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콕스비례재해률 모형에서는 출산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여성(case)의 비율(proportion)인 누적재해률함수(cumulative hazard function)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이다. 즉 비취업상태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사건(event)의 재해률(hazard rate)이 된다.

이 재해률은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사건(event)을 경험하게될 순간적인 확률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_{jk}(t, t+\Delta t)}{\Delta t}$$

여기서 $P_{jk}(t, t+\Delta t)$ 는 t 시점에서 j 상태에 있다가 t+Δt 시점에 k 상태로 변화하게될 확률이다. 즉 비취업 상태로부터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순간적인 확률이다. 이와 같은 재해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t) = h_0(t) \exp(b_1 \times \text{인구학적특성} + b_2 \times \text{가계 특성} + b_3 \text{노동시장경험특성})$$

이 모형은 부분우도(partial likelihood)방식으로 추정된다.

2. 분석변수

종속변수는 출산시점부터 노동시장 신규 진입까지의 경과 기간에 대한 재해률이다.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과 학력이 포함되고, 가계특성으로는 가계의 월평균 소득과, 자녀보육대행자의 유무, 그리고 남편의 취업형태가 해당되며, 노동시장경험특성으로는 출산 전 직업전환경험의 유무가 포함되었다. 이들 변수 중 학력, 자녀보육대행자 의 유무, 남편의 취업형태, 직업전환경험 유무의 변수는 모형에서 가변수 형태로 분석되었고, 연령, 가구소득은 연속변수 형태로 분석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분석은 SAS V.8을 이용하여 기초분석과 모형분석을 하였으며, 콕스비례제해를 모형분석을 위해서는 PHREG procedure를 이용하였다.

IV. 결과의 논의 및 해석

1. 출산 후 노동시장 신규 진입 비율 및 진입여부에 따른 특성

<표 3>과 같이 출산 전 비취업 상태였던 136명 중 33.1%인 45명은 출산 후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여 적지 않은 비율의 여성들이 출산 후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여성이 평균 27세 정도의 젊은 여성들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자녀양육으로 인한 유보임금이 높은 시기에 있더라도 기혼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적지 않은 비율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까지는 출산 후 14.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출산 이전과 같이 비취업상태를 유지

<표 3> 출산 후 노동시장 신규 진입 비율 및 경과기간
(N=136, 비율=100.0)

출산 후 노동시장 진입여부	취업상태변화		경과기간
	사례수	비율	
진입함	45	33.1	비취업 취업 평균 14.4개월
진입안함	91	66.9	비취업 비취업 -

<표 2> Cox Regression 분석변수 정의와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출산시점에서 노동시장에 신규진입까지 기간의 재해률
설명변수		
가변수	학력	출산시 최종 학력 1=전문대졸이상, 0=고졸이하
	자녀보육대행자	출산시 가계에 본인을 제외한 자녀 보육자 유무 1=있음, 0=없음
	남편 취업형태	출산시 남편의 취업유형 1=비임금근로자, 0=임금근로자
	직업전환경험유무	15세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총 직업변경 경험 유무 1=있음, 0=없음
연속변수	연령	출산시 만나이
	가구소득	출산시 월평균 가구근로소득의 자연로그값

하는 비율이 이보다 높은 6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특성은 서로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노동시장 진입 여부에 따른 진입자와 비진입자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연령은 비취업상태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여성(27.3세)에 비해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이 평균 26.8세로 더 젊은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5세 미만의 어린 기혼여성들이 비율이 33.3%로 비진입자에 비해 높다. 학력수준은 차이가 없으나, 다만 진입자의 경우 대졸이상의 비율이 20.0%로 비 진입자 12.1%에 비해 8%p 가량 높다.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녀보육을 맡아 줄 자녀보육자가 있는 경우는 진입자가 11.1%, 비진입자가 5.5%로 진입자가 2배 높은 비율이며,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비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여성의 경우

가 17만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 진입 여성 남편 취업형태는 비임금근로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에 비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여성 남편의 취업형태는 임금근로의 비율이 더 높은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두 집단 의 차이가 출산 후 노동시장 신규 진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가는 기초분석 수준에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는 체계적인 모형분석을 통해서 규명될 것이다.

2. 출산 후 노동시장 신규 진입의 결정요인

출산 후 노동시장 신규진입의 결정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한 콕스비례회귀분석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의 무차모형(zero-order model)은 다른 변수

<표 4> 출산 전 직업 비보유자의 노동시장 진입여부에 따른 특성

(N=136, 비율=100.0)

구분	범주	노동시장 진입여부			
		진입자(n=45)		비진입자(n=91)	
		사례수	비율/평균	사례수	비율/평균
연령(세)	25세 미만	15	33.3	18	19.8
	25-30세 미만	21	46.7	53	58.2
	30-35세 미만	6	13.3	18	19.8
	35세 이상	3	6.7	2	2.2
	평균		26.8		27.3
학력수준(년)	고졸미만	2	4.4	1	1.1
	고졸	27	60.0	61	67.0
	전문대졸	7	15.6	18	19.8
	대졸이상	9	20.0	11	12.1
	평균		13.0		12.9
자녀보육대행자 유무	있음	5	11.1	5	5.5
	없음	40	88.9	86	94.5
남편취업형태	임금근로자	17	37.8	54	59.3
	비임금근로자	28	62.2	37	40.7
가구총소득(만원)	월평균 가구 총소득		141.3		158.5
직업전환횟수(회)	0회	26	57.8	47	51.6
	1회	8	17.8	29	31.9
	2회	7	15.6	12	13.2
	3회 이상	4	8.8	3	3.3
	평균		0.8		0.7

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변수의 효과만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자녀보육대행자의 여부와 직업전환경험의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변수들의 효과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게 되면 달라진다. 이들 변수를 통제하여 분석한 모형이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제시된 모형은 인구학적특성 변수의 효과만을 분석한 모형1과 모형1에 가계특성변수를 추가한 모형2, 그리고 모형2에 노동시장 경험특성 변수를 추가한 모형3의 세 가지이다. 각 모형의 $-2\log$

likelihood 값의 변화를 비교하여 보면 full-model인 모형3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출산 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을 결정하는 요인을

- 1) hazard ratio 값이 '1'보다 크면 계수는 양(+)의 값을 갖고, '1'보다 작으면 음(-)의 값을 갖게된다. 예컨대 연속 변수인 연령의 계수가 0.797이고, hazard ratio가 1.0829라면, 연령이 1세 늘어갈수록 여성이 경력단절 상태에서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이행률은 1.0829배 증가한다고 해석하고, 반대로 계수가 -0.797이고 hazard ratio가 -0.08이라면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이행률은 92%(100-0.08)감소한다고 해석한다.

<표 5> 출산 후 노동시장 신규진입 결정요인 분석 I : Cox Regression Analysis

변 수		변수값	무차모형(zero-order)
인구학적특성	연령	만나이	-0.06(0.94)
	학력	전문대졸이상(고졸이하)	0.44(1.55)
가계특성	가구소득	월평균가계소득의 자연로그 값	-2.86(0.75)
	자녀보육대행자	있음(없음)	0.93(2.54)*
	남편 취업형태	비임금근로(임금근로)	0.98(2.66)
노동시장경험 특성	직업전환경험	있음(없음)	0.68(1.98)**
사례수			136
event			45
censored(%)			91(66.9)

* $p < .05$, ** $p < .01$, *** $p < .001$

() : hazard ratio¹⁾

<표 6> 출산 후 노동시장 신규진입 결정요인 분석 II : Cox Regression Analysis

변 수		변수값	모형1	모형2	모형3
인구학적특성	연령	만나이	-0.07(0.93)	-0.09(0.91)	-0.09(0.91)*
	학력	전문대졸이상(고졸이하)	0.53(1.70)	0.45(1.57)	0.47(1.59)
가계특성	가구소득	월평균가계소득의 자연로그 값		-0.54(0.58)	-0.46(0.63)
	자녀보육대행자	있음(없음)		1.19(3.29)**	1.04(2.83)**
	남편 취업형태	비임금근로(임금근로)		0.98(2.66)	0.86(2.36)
노동시장경험 특성	직업전환 경험	있음(없음)			0.67(1.96)***
$-2\log$ likelihood			259.79	254.65	250.32
사례수			136		
event			45		
censored(%)			91(66.9)		

* $p < .1$, ** $p < .05$, *** $p < .01$

() : hazard ratio

파악하기 위한 세 모형의 분석결과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정된 모형3의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된다.

모형3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구학적 특성으로서의 연령과 가계특성으로서의 자녀보육대행자의 유무, 직업전환경험이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적자본의 영향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학력의 가변수와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가구소득, 그리고 남편이 자영업과 같은 비임금근로자 일 때,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원으로 비임금근로에 편입되기 쉽기 때문에 모형에 포함된 남편의 취업형태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연령은 인구학적특성의 영향만을 살펴본 모형1과 가계특성을 통제하고 본 모형2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애 직업전환경험의 변수를 통제한 모형3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출산 후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할 이행률은 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젊은 여성일수록 출산 후 유보임금이 높아질지라도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젊은 여성들이 출산 후 비취업상태에 머물기보다는 어린자녀가 있는 시기에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층의 여성이 출산 후 노동시장 재진입률이 높고, 취업에 대해서 더 강한 애착을 보인다고 밝힌 Desai & Waite(199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가계특성변수인 자녀보육대행자의 유무에 있어서는 자녀보육대행자가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출산 후 노동시장에 신규진입 하는 이행률이 2.83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 후 기혼여성의 유보임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녀양육이라는 신고전경제학파의 노동공급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에 있어서도 그 시기가 자녀출산 이후 시기라면 예외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있어 최대 관건이

자녀보육을 대체해줄 조력자가 있는가의 여부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자녀보육의 문제가 여전히 기혼여성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현실적인 장해 요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직업전환경험에 있어서는 생애 취업활동 중 직업을 변경한 경험이 있을수록 출산 후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이행률이 1.96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잦은 이동을 경험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에 더 쉽게 진입한다고 밝힌 김영옥(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젊은 여성일수록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또는 취업에서 비취업으로 전환하는 이행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Phang(1994)의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젊은 여성의 적극적인 취업활동과 구직활동이 출산 후 시기에도 반영된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의 경험이 재취업 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출산 후 기혼여성의 취업상태 변화에 있어서 자녀출산으로 인하여 유보임금이 높아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들의 특성과 이들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태분석의 하나인 콕스비례재해물모형(Cox Regression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 전 비취업 상태였던 여성 중 33.1%의 적지 않은 비율의 여성들이 출산 후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출산 후 비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에 비해 평균 연령이 젊고 자녀보육대행자를 가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평균 소득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차이는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결정요인에 반영이 되어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녀보육대행자를 보유할수록 출산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분석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직업전환경험의 특성이 이

들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취업활동의 경험이 많고 자녀보육대행자를 보유하는 젊은 여성들이 출산 후 높아진 유보임금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신규진입하고 있다면, 기혼여성의 인력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연령을 세분화하여 각 연령층에 맞는 보다 체계적인 유인책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젊은 기혼여성들일수록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여 여성인력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접근 경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혼여성이 차별로 인해 구직활동을 포기하여 스스로 비취업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시장여건의 개선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자녀보육의 문제가 출산 후 여성의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자녀보육의 문제를 부모세대와의 동거나 세대간의 사적 자원이전으로 해결하고 있는 가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정부의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혼여성인력 활용에 관한 제반정책을 구체화하여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미시적인 수준에서 동태적으로 파악한 연구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유용한 정보로 누적되어야 하며, 이러한 동태적인 분석연구는 적절한 자료가 마련되었을 때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4년 동안 누적된 패널자료는 여성의 생애사건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진입과 탈퇴의 전 과정을 관찰하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며, 이로 인하여 매우 제한적인 분석대상과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동태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향후 지속적으로 패널자료가 구축된다면 첫 자녀 출산에 이어 추가적인 자녀출산에 따라 취업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동태적인 분석연구가 활성화되어 보다 현실적이고 적절한 여성인력 정책을 확립하는데 이들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수근, 심경옥(1984).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김영옥, 노미혜(1993). 한국여성의 취업경력.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옥(1998). 여성취업력의 동태적인 변화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 김혜연, 김순미(1997). 비취업 기혼여성의 취업의사와 영향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2), 81-94.
- 김지경, 조유현(2001).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2), 15-24.
- 김태홍(1995). 기혼여성의 재취업구조와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문숙재 외(1996). 취업여성의 노동중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99-112.
- 신영수(1991). 여성인력의 노동공급행태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양승주(1994).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행태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열(1996).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상호연관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인구학, 19(1), 5-44.
- 장지연, 김지경(2001). 양육형태와 비용이 기혼여성의 취업단절에 미치는 영향.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365-388.
- 통계청(2002). 경제활동인구연보.
- 한국노동연구원(2002).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User's Guide*.
- Allison, P. D. (1995). *Survival analysis using the SAS system a practical guide*. SAS Institute Inc.
- Barrow, L. (1999). An analysis of women's return-to-work decisions following first birth. *Economic Inquiry*, 37(3), 432-451.
- Becker, G. (1965). A theory of allocation of time. *The*

- Economic Journal*, 75, 493-517.
- Chang, Jiyeun (1997). *Labor force withdrawal and entry surrounding first childbirth of married wome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 Connelly, R. (1992). The effect of child care costs on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 83-90.
- Desai, S. & Waite, L. (1991). Women's employment during pregnancy and after the first birth :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work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551-566.
- Dex, S., Joshi H., Macran, S., & McCulloch, A. (1998). Women's employment transitions around child Bearing.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0(1), 79-98.
- Femlee (1984). Dynamic of women's job mobility. *Work and Occupations*, 11, 259-281.
- Klerman, J. A & Leibowitz, A. (1990). Child care and women's return to work after childbirth. *American Economics Review, Nashville*, 80(2), 284-290.
- Lehrer, E. & Nerlove, M. (1984). The labor supply and fertility behavior of married women. *Research in Population Economics*, 3, 123-145.
- Leibowiz, A., Klerman, J., & Waite, L. (1991). Employment of new mothers and child care choice : Differences by children's ag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7, 112-134.
- Mason, K. O. & Kohlhau, K. (1992). The perceived impact of child care costs on women's labor supply and fertility. *Demography*, 29, 523-543.
- Mincer, J. (1982). Interrupted work careers. *Journal of Human Resources*, 1(23), 3-29.
- Phang, Hanam (1994). *A dynamic study of young women's labor market transitions over the early life course : Cohort trends, racial differential, and determinan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2003년 7월 6일 접수, 2003년 12월 1일 채택)